



김용민 베드로 | 정형외과 의사

소록도에서 만난 검은 피부의 예수님

제가 소록도에 있었던 시간은 1년 3개월로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고, 그로 인해 이후의 제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, 또 여러 가지 값진 추억들을 가슴속에 남기게 되었습니다. 저는 공중보건의로 전남 무안에서 근무하다가 소록도로 자원하여 옮겨가게 되었는데, 제가 소록도를 ‘천국 같았다.’고 회상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검은 얼굴에 늘 선한 장난기가 넘치는 웃는 눈의 소유자, 멕시코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 한조룡 신부님입니다.

병원이나 마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신부님은 차렷 자세로 “의사님!” 하면서 썩 웃으며 거수경례를 하셔서 처음엔 ‘왜 나한테?’하고 놀랐지만, 얼마 뒤부터는 저도 웃음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. 또 직원, 환우들을 마주치면 누구든 정답게 불러 세운 뒤 사탕을 듬뿍 쥐여 주시며 그들을 웃게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. 신부님께서 미사 중에 꼭 하시던 말씀은 “특히 쏘로 쏘로(서로 서로) 용서하십시오.”였습니다. 그때는 왜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, 이후 많은 관계들을 통하여 용서야말로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필수적이고, 실질적인 첫 단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

한 신부님은 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, 자신의 이야기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. 10년 만에 보는 고해성사 때, 하느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이해시키시려고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신 덕에 저는 오래된 냉담의 벽을 허물고, 먼 길을 ‘돌아온 탕자’처럼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! 이런 일은 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해에는 두 명의 의사를 포함하여 특별히 많은 섬 동료들이 어느 화창한 일요일에 멕시코 스

타일(?)의 길고 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일제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.

제가 섬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신부님께서 간경화가 악화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위에 많은 사랑을 나눠 주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, 더 이상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없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런데, 오랜 세월 뒤에 한 신부님은 또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. 어느 날 미사에 다녀온 아내가 본당 신부님의 강론 중 “오래전 광주 신학교 시절 나의 스승이신 한조룡 신부님은 남모르게 새끼줄을 동여매어 자신을 고통에서 한 시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면서도 오히려 그 고통을 밖으로는 사랑으로 바꾸어 나눠준 분입니다.”라는 말씀을 들었으며, 갑자기 신부님이 보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. 한조룡 신부님은 이렇게 스스로는 한평생 고통 속에서 보내며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때마침 그 시절에 저를 소록도로 보내 주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사랑을 통해 제 삶에서 커다란 변화와 성장을 얻을 수 있었기에 저는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

를
나를 이끄는
성경구절

하느님께서 보시니
소수만 드신 모든 것이
침종앗다

창세기 1.31

정은희 마리아
마천동성당